



4 8 7

발 간 등 록 번 호
38-1600006-000001-06



<http://afin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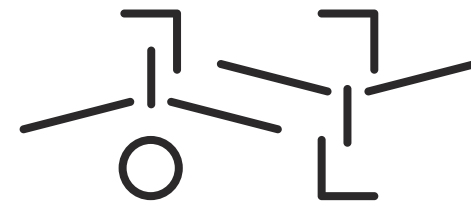
대한민국 공군
창군 70주년
Since 1949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2019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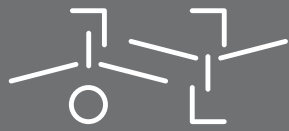
MONTHLY MAGAZINE 2019-1 487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2019
01
4 8 7





COVER STORY

창군 70주년, 공군의 어제와 오늘

공군 창군 70주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L-4연락기 10대로 시작한 대한민국 공군은 70년의 세월 동안 첨단 항공우주군으로 변모했습니다. 모든 시작은 '독립된 조국의 공군'을 만들겠다는 열망으로 헌신한 선배 공군인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늘을 넘어 우주로 나아가면서도 과거를 늘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월간 『공군』은 이번 한 해를 창군 70주년에 걸맞는 다양한 기획으로 채워 나가고자 합니다.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군 70주년의 해 『공군』 신년호! 지금 시작합니다.

LETTERS TO EDITOR

좋은 의견을 주신 독자 여러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조주호 (강원도 원주시)

월간 『공군』은 '지식정보망'이다. 공군에서 복무하면서도 몰랐던 일들을 월간 『공군』을 통해 접하기 때문이다. 새롭게 추가된 전문특기병에 대한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고, 주위에 입대하지 않은 이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편집실

조주호 독자님, 전문특기병은 공군의 4대 핵심가치 중 하나인 '전문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군 복무 중에 전문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고 개인의 전문성을 기르기에도 아주 좋은 기회지요. 주변에 적극 추천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현용 (경남 진주시)

월간 『공군』은 '쉼터'다. 고된 훈련 속에서 배시시 웃으며 휴식을 취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훈련소의 많은 동기들이 특수임무반 관련 기사를 읽고 특수임무반원이 되겠다는 꿈을 키우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집실

이현용 독자님, '19년 1월호는 건강히 임관하셔서 읽고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월간 『공군』이 힘든 훈련 가운데 쉼터가 되고 꿈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몹시 뿌듯합니다. 임관 이후 임무 수행 중에도 휴식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월간 『공군』을 찾아주세요!



신동훈 (대구시 수성구)

월간 『공군』은 '선진 병영문화를 선도하는 길잡이'다. '청년 장병 일자리 지원 대책' 기사를 보며 요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공군에서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어 인상 깊었습니다.

편집실

신동훈 독자님, 공군은 장병들이 복무 중에는 개인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자기계발 여건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탕이 있기에 일자리 지원 대책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월간 『공군』은 공군의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학 (경기도 평택시)

월간 『공군』은 '단풍'이다. 우리 창공을 안전하게 물들여주기 때문이다.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을 상세히 다뤄주신 덕분에 직접 기본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치곤 장군의 헌신에 고개 숙여 감사인사를 드렸습니다.

편집실

김기학 독자님, 독자님의 말씀처럼 유치곤 장군과 같은 선배 공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공군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성장해올 수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이 찾아오면 한번쯤 호국기념관을 방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